



# 보 도 자 료

보도

2019.3.14.(목) 8:30 이후

배포

2019.3.14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35)
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	권 민 영 사무관 (02-2100-2853)
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박 상 준 팀 장 (02-3145-7611)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진 해(02-3145-7240)		김 금 태 팀 장 (02-3145-7242)

## 제 목 : 「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 개최

1

### 회의 개요

- ☐ '18.3.14.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「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를 개최
- ☐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발표한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의 대표 과제였던
  - 'RP시장의 효율성·안정성 제고방안'과 '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' 등을 논의

### 【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'19.3.14(목) 08:30~09:3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 - (금융위) 사무처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금융정책과장, 금융시장분석과장, 보험과장 등
  - (기재부) 외화자금과장, 자금시장과장
  - (금감원) 거시건전성감독국장, 보험리스크제도실장
  - (예보) 리스크총괄부장 (한은) 비은행분석팀장
  - 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

-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  - 금융시장 안정,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관리로 금융감독 범위를 넓혀 오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면서,
  -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,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함
  - “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”는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하는 전문기구이자 논의의 장(場)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함
-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“금융감독의 병목(bottleneck) 현상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
  -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공유함으로써,
  - 리스크 정보가 개별 기관·부서 단위에서 머무르면서,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
- 또한,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시 발생하기 쉬운 “무대응 편향(inaction bias)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  -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\*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기(→무대응 편향)하는 경우가 많으나,
    - \*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은 쉽게 산출되지만,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출이 어려워 규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
  - 동 협의회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세밀히 분석·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함으로써,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

- 아울러, 손 사무처장은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‘감독의 사각지대’를 최소화하고
- 핀테크, P2P,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

### [ RP시장의 효율성 · 안정성 제고방안 ]

- RP시장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,
  - 익일물 거래비중이 90%를 상회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
    - \* RP잔액(조원) : ('13년말) 27.1 → ('15년말) 43.8 → ('18년말) 95.5
    - \* 익일물 거래비중 : ('16년) 92.3% → ('17년) 93.2% → ('18년) 93.4%
-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‘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’ 부과 추진
  - \* RP차입규모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 → 유동성리스크 경감
-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 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,
  -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

### [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]

- 보험사의 경우,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,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하여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,
  -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
- 이에 대비하여,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
- 또한,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
  - \* 외환포지션 = | 외화자산 합계 - 외화부채 합계 | < 지급여력금액의 20%

- ☐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(필요시 수시개최)
-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·점검하고 발표
  -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발굴·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

※ 별첨1 : 사무처장 모두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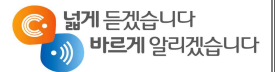
※ 별첨2 : 「RP시장의 효율성·안정성 제고방안」

※ 별첨3 : 「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(조치방안 요약)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1

보험회사 외화자산 통계관리 강화

- **(적용방안)** 보험회사가 운용중인 외화자산 투자 및 외화자산 관련 환헤지 파생상품 등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
  - 외화자산의 신용등급, 만기구조, 외화자산 관련 환헤지 현황 등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외화자산 분석 강화
  - 외화자산 및 관련 환헤지 현황 등에 대해 세부내용 분석 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반영 추진
- **(조치사항)*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→ '19년 4/4분기부터 시행

2

외화자산 환헤지 리스크 개선

- **(적용방안)**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을 환헤지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반영
  - 외화채권과 이에 대한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여 차환 리스크 관리 유도

※ 지급여력비율(RBC)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\*

\* 요구자본 ≡ (신용Risk+시장Risk+운영Risk)+(보험Risk+금리Risk)

◇ 차환리스크의 요구자본(시장리스크) 적용(안)

- '계약만기 1년 미만 파생상품(롤오버 필요) 익스포저 × 0.8%\*'를 시장위험액으로 계상

\* 위험계수는 점진적으로 조정 [(현재) 0% → ('19말)0.4% ('20말)0.6% ('21말)0.8%]

\* 6개월 미만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1.6%, 6개월 이상~1년 미만은 0.8% 적용

-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

#### ◇ 외환위험 경감효과 반영(안)

- ▶(현행) 헤지목적인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외환익스포저 전액 차감
- ▶(개선) 헤지목적이라도 잔존만기에 따라 외환익스포저 차감비율 차등화
  1.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: **100%**
  2.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 
: 잔존만기비율 + (1 - 잔존만기비율) × 80%  
단,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원만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: 잔존만기비율\*  
\* 잔존만기비율 = 파생금융거래의 계약만기 / 12개월 → 3개월은 25%
  3. 통화 파생금융거래의 잔존만기가 외화자산 잔존만기가 이상인 경우 : **100%**

- (조치사항)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→ '19년 4/4분기 시행

### 3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

- (적용방안)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로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
- (조치사항)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→ '19년 4/4분기 시행

### 4 향후 추진계획

- 제도개선 시행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조달·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, 추가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